

관공서 출근시간 늦추고 수험생 특별수송

수능 D-2...문답지 배부 시작
 광주·전남 종합지원대책 추진
 시험장 주변 질서요원 배치
 경찰 순찰차·오토바이 총동원

한 정보도 제공한다. 시험장 주변에는 오전 6시부터 교통경찰, 교통안내원, 모범운전자 회원이 집중 배치돼 시험장 반경 2km 내 간선도로의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유도한다. 시험 당일엔 시험장 주변 200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경찰 등도 수험생 돕기에 나선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수험생 탑승 차량에 대해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고, 수험생들이 주로 이동하는 곳에 순찰차 73대와 경찰

오토바이 8대를 집중 배치해 수험생 수송을 지원한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선 교통약자전용차량 182대를 대기시켜 사전 예약(10월30일~11월10일)한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집에서 시험장까지 무료 수송한다. 시험 입실시간이 임박한 수험생의 경우 112, 119로 신고하면,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순찰차 등이 출동해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한다. 전남경찰청도 수능 당일 오전 6시부터 교

통·지역경찰·기동대·협력단체 회원 등 총 505명과, 순찰차·싸이카 등 174대의 장비로 집중 배치해 수험생의 수송을 돕는다. 이 밖에 3교시 듣기시험 시간대인 오후 1시10분부터 35분까지는 광주공항 민항기 이착륙이 금지되고, 군 전투기는 시험 일 훈련이 중지된다. 한편 교육부는 11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전남 7개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전국 86개 시험 지구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문제지와 답안지가 11일 오후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으로 도착하고 있다. 교육청 직원들이 문답지를 운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4 해질 17:34 달뜨기 17:29 달지기 06:22

맑은 가을 하늘
 아침에 안개 끼는 곳 많아 출근길 주의 필요하겠다.

광주	맑음	7/18	보성	맑음	5/18
목포	맑음	9/16	순천	맑음	8/19
여수	맑음	10/18	영광	맑음	5/17
나주	맑음	4/18	진도	맑음	9/17
완도	맑음	9/19	전주	맑음	5/17
구례	맑음	6/18	군산	맑음	5/16
강진	맑음	6/19	남원	맑음	4/18
해남	맑음	5/18	흑산도	맑음	13/17
장성	맑음	4/18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남동~남	0.5~1.0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남동~남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0.5~2.0	북서~북	0.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1.5

◇생활지수

- 관심: 식중독
- 보통: 자외선
- 보통: 미세먼지

◇물때

지역	간조	만조
	07:03	01:41
목포	19:29	14:14
여수	02:31	08:55
	14:53	21:00

◇주간 날씨

날짜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날씨	☁	☁	☁	☁	☁	☁	☁
강수량	9/18	7/9	2/14	8/18	10/19	11/13	4/10

최근 3년 다이옥신 초과 배출 소각시설 광주·전남 6곳 전국최다

보성 업체 전국 최고 기준치 초과
 최근 3년 간 다이옥신 초과 배출 소각시설 전국 25곳 중 광주·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장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을 점검한 결과 광주 1곳, 전남 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배출 시설을 살펴보면 광주 남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주한재,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인 보성군환경지원사업소 2호기, 신안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일반쓰레기 소각시설인 여수의 주한재, 나주의 주남부환경개발 등 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특히 보성군환경지원사업소 2호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준치의 16.95배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붕소·방부제 등 초과 검출 액체괴물 100개 제품 리콜

붕소, 방부제, 프탈레이트 가스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액체괴물(슬라임)'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8개 업체 100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액체괴물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기준치의 최대 3.9배, 24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최대 5.2배, 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스제가 최대 206.18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붕소는 노출될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방부제는 삼키기 유독하며,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스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중고교 3년간 재시험 674건...대부분 출제오류

광주지역 중·고교에서 시험문제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 많아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광주시의회 최영환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광주지역 157개 중·고교에서 674건의 재시험이 치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전체 고등학교 67곳 중 무려 62곳(92%)에서 484건의 재시험을 치렀고, 중학교도 90곳 중 67곳(74%)에서 190건의 재시험이 있었다. 특히 재시험을 치른 이유로는 정답이 없거나 객관식 문항에 오류가 있는 등 '출제

오류'가 598건(88%)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시험 진도 불균형 등 수업 범위 48건(7%), 감독 부주의 등 행정 실수 24건(3%) 순이었다. 최영환 의원은 "정확성이 담보돼야 할 학교 시험이 출제 관리부터 부실하다"며 "피해자는 학생들이기에 학생들을 우선하는 교육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 해제 지역사회 반발

대한불교 조계종이 최근 장성 백양사의 고불총림(古佛叢林) 지정 해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6일 열린 제 217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불총림 지정 해제' 안건을 출석의원 76명 중 67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승가 공동체를 뜻하는 총림(叢林)은 선원·강원(승가대학 또는 승가대학원)·율원(율학승가대학원) 등 교육·수행기관을 갖춘 대승찰을 뜻한다. 현재 조계종 총림법에 따라 송광사(조계총림), 해인사(해인총림), 통도사(영축총림) 등 전국 8대 사찰이 총림으로 지정돼 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날 중앙종회에서는 백양사가 총림법이 규정하는 총림 구성 요건을 현저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정 해제를 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에 광주·전남 불교계와 시민사회가 즉각 협회를 촉구했다. 백양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미비 사항 개선 요청을 받고 이를 실행하던 중이었는데,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하루 만에 처리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백양사 방장인 지선스님은 사회 운동 분야에서 적잖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그런 일들이 위축되거나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병무청,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 접수

병무청은 "오는 18일부터 재학연기자 및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2020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을 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재학생입영원은 분기별로 선발해 소집 일자과 복무 기관을 선택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집 일자와 복무 기관

을 신청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접수는 25일 오후 6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선발자 발표는 28일 오후 2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